

2023 문화계 결산 <3> 문학

# 광주서 첫 '세계한글작가대회' ... 독립서점 '북페어' 개최

올해 문화계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많이 없었지만 예년과 다른 수준의 활동을 펼쳤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사상 첫 광주에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제PEN한국본부는 모두 8회에 걸쳐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경주에서, 6회 7회는 서울, 8회는 광주에서 열려 서구 중심의 문제를 한글과 한국 중심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이번 작가대회 주제는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11월 14~16일)이며 광주문학관을 비롯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등에서 열렸다. 참석 문인으로는 현기영 작가를 비롯해 한강 작가, 김홍신 작가 등과 국내 주요 문학단체, 한글 전문가, 번역가, 학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포질 파르호드 소설가, 독일 알브레히트 후베 교수, 몽골 불강타미링 바트체택 아동작가, 미국 존프랭클 교수 등이며 약 20개국에서 문인들이 참가했다.

11월 15일은 특별 강연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강 작가는 강연에서 "역사 속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며 "동일한 관점에서 역사 속의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행위는 폭력의 반대편에서 서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신영 광주지역위원회 이사장은 "세계한글작가대회는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문인들과 교류와 친목도모 등에 기여했다"며 "특히 광주의 로컬문학과 청년작가들이 이뤄온 창작성과 문학성을 점진 및 조망하고 미래문학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두루 모색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동주문학상에는 이은 시인이 선정됐으며 수상작은 '언니, 우리 물류창고에서 만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 주제

20개국 문인들 참가...한강 강연

'동주문학상' 이은 시인 선정

'목포 문학박람회' 문학 힐링·치유

공선옥 창작집·문순태 시집 발간

나오' 등 5편.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부터 운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응모를 받았다. 총 130여 명이 응모한 이번 공모에는 32명의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해 5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장석주·나희덕·이병률 시인은 수상작품에 대해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과 자본, 기계와 인간 등을 둘러싼 집중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들"이라며 "체험의 구체성과 짙진한 묘사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유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월란 시인이, 운동주 시인의 민족애를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위상헌의 노세웅 시인이 선정됐다. 또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주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주해외시인상은 코사박 시인(본명 박상은)이 뽑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지만 책을 매개로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서점, 독립서점의 '북페어'가 개최됐다. '아트 오아시스'는 11월 중순경 '책과



올해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작가대회 모습.

삶'을 주제로 전일빌딩245에서 '아무튼, 북페어'를 열었는데 전국의 6개 지역 12개 독립서점들이 참여했다.

정재경 담당자는 "이번 북페어는 전국 각지에 있는 독립서점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동일한 가치를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 서점마다 특징적인 큐레이션이 있어서 개성적인 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 동구에서는 11월 초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의 23개 동네서점이 참여한 '오감만족 인문 힐링 북페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극장 일원에서 열렸다. 지역에서는 라이트리프트, 러브앤프리, 서점서점, 소년의서, 연

지책방, 예지책방, 이것은 서점이지 아니다, 책과생활, 파종모종 등이 참여했다.

지난 9월에는 '2023 목포 문학박람회'가 열려 예향의 도시 목포가 문학의 향기로 물들었다. 이번 박람회는 크게 청년 신진작가관, 디지털 문학관, 골목길 문학관, 문학힐링 치유 등을 주제로 펼쳐졌다.

작가들과 시인들의 창작집 발간도 잇따랐다. 공선옥 작가 장편 '천재의 노래', 보성 출신 정범종 작가 장편 '매사냥꾼', 화순 출신 김신은 작가가 7년째 장편 '구름 관찰자', 광주일보 신춘 출신 작가 채정은 첫 소설집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다'를 각각 펴냈다. 마찬가지로 광주일보 신춘 출신 강대선 시인은 소설 '우주일화'와 '대륙의 천검'을 발간

해 주목을 받았다.

시인들의 시집 발간도 이어졌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문순태 작가는 시집 '흥어'를 매개로 전라도 정체성이 깃든 흥어의 미학을 풀어냈다. 구순이 넘은 진현성 시인은 제17권 '비짜락'을 발간해 꺼지지 않는 창작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으며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박석준 시인도 첫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를 발간했다.

1975년 전국 첫 학생시조합회를 결성한 전남 고교생 시인들이 47년만에 초로의 시인들이 되어 펴낸 '다시, 화양연화'는 지역 문학계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끝>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기념 'The Father' 무대에

예술이백그라운드·푸른연극마을 내년 1월17일부터 씨어터연바람

1993년 창단 이래 지역 연극계를 30년 간 지켜온 푸른연극마을은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다. 전용 소극장을 운영하며 책박한 광주 극예술계에 하나의 거점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동안 정기 공연 '인간의 무늬' 등 다채로운 정기·창작공연 등을 선보여 왔다.

예술이백그라운드와 푸른연극마을이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기념공연-The Father'를 연다.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씨어터연바람(동구 구성로 204번길 1-1 지하)에서 펼쳐지며, 평일은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 30분 진행(월요일 공연은 없음).

파리의 한 아파트, 그곳엔 80세 노인 앙드레가 살고 있다. 딸 안느는 그에게 간병인을 붙여줬지만 앙드레는 그것이 못마땅한데, 간병인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훔쳤다고 생각하기 때문. 안느는 계속되는 앙드레의 의심과 괴팍한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다. 결국 안느는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이사 갈 계획을 양



'The Father' 리허설 장면.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드레에게 털어놓는다. 작품은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등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더 퍼더'의 원작 희곡 '아버지 Le Pere'를 모티브로 창작했다. 플로리앙 젤레르 작.

앙드레 역은 푸른연극마을에서 1993년 푸른연극마을을 창단해 30년간 극단을 이끌어 온 오성완 배우가 맡는다. 안느 역은 이랑금, 한 여자 역에 안티고네, '개복숭아 꽃' 등에서 열연한 오세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오성완 배우는 "지나온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 올 30년을 준비하며, 이번 공연이 광주와 극단의 존재 이유를 환기하는 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가 창단 30주년이지만, 기념 공연을 내년에 하는 것도 이 같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랑금 대표는 "프랑스 최고 연극에 수여되는 '몰리에르작품상'을 수상한 'The Father'는 토니상, 올리비에상 등을 수상했다"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프랑스어 희곡을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선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석 3만5000원, 28일부터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래홍·탁현수 선정

작품상 김효비아

국제PEN광주문학상은 표현의 자유와 옹호 등에 초점을 둔 국제PEN클럽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문학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3년 제정됐다.

올해의 국제PEN광주문학상에 박래홍 시인의 시집 '철조망에 걸린 반달' (운문), 탁현수 수필가의 산문집 '기다림, 그것은' (산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의 작품상에 김효비아 시인의 '애오라지'가 뽑혔다.

국제PEN광주지역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갖고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제PEN광주문학상은 5년 이내 발간한 작품집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운문부, 산문부 두 장르에 대해 선정하며 올해의 작품상은 당해 년도의 연간집인 광주펜문학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1편을 선정한다.

박래홍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동심의 세계에서 무지개 꿈을 꾸는 것만 같다"며 "큰 상을 주신 것은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채찍질로 여기며 더



박래홍 시인



탁현수 수필가



김효비아 시인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탁현수 수필가는 "저에게 있어 글쓰기는 호수에 맑고 푸른 물을 끊임없이 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호수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푸른 물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비아 시인은 "시 쓰기 작업은 감옥의 쇠고랑처럼 나를 부자연스럽게도 하지만 때로는 시는 생명을 낳는 기적이기도 하다"며 "생명의 입태에서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주는 그 환희를 통해 비로소 존재로서의 거듭남을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국제PEN광주21호 출판기념회 및 총회가 열리는 28일 오후 3시 전일빌딩 8-9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인문학 방망이, 그 평화롭던 다듬이질 소리' 비움박물관 내년 2월13일까지

옛 조상들에게 기나긴 겨울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다소 무료할 수도 있지만 한켠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여러 활동을 펼쳤다. 다듬이 방망이 소리는 한겨울 적막을 깨우는 정겨운 소리였다.

농경시대 친숙한 생활용품이었던 다듬이 방망이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내년 2월 13일까지 '인문학 방망이, 그 평화롭던 다듬이질 소리'전을 연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옛 조상들의 손때묻은 유품들과 생활용품들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다듬이질과 방망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옛것의 귀함과 의미의 되새기게 한다. 무엇보다 세상의 시끄럽고 번잡한 소리와는 다른 방망이질에 담긴 인문적 사유를 환기한다.

이영화 관장은 "다듬이질과 방망이는 두드릴수록 반듯해 지는 지혜가 담겨 있다"며 "박물관에서는 빨래터나 규방에서 사용하던 빨래 방망이, 다듬이



다듬이질과 방망이.

방망이, 다듬이질을 비롯해 다양한 옛 생활용품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시장에서는 흥두개, 여인들이 손수 만드었던 무명, 삼베, 명주 등도 볼 수 있다. 다양한 볼품들은 비록 삶은 빈한하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고 여유 있었던 옛 시절을 떠올리

게 한다.

한편 수장고 형식의 민속박물관인 비움박물관은 3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들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획전전을 열어 선보이고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백주영·김기준 대상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임원식·광주예총)가 수여하는 '제29회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대상에 백주영, 김기준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모니리스트 백주영 씨는 올해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연예예술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 하모니카 연주곡 음반을 20여 장 발매해 왔다.

조산대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기준 씨는 광주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오페라단연합회 운영이사, 광주성악공쿠르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 수상자로 광주국악협회 정준호, 광주무용협회 선유라를 비롯해 광주문인협회 이선근 씨가 선정됐다. 예술상에는 광주전남 건축가회 김정선, 광주국악협회 엄물희를 비롯



백주영



김기준

해 광주문인협회 김명숙, 광주영화협회 오석환, 광주음악협회 정찬영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예총 예술문화상은 광주예총회원으로 우수한 예술창작활동 및 문화활동으로 지역예술문화발전 에 기여한 인사에게 1994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광주예총 방송소리공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예총 안선순 사무처장은 "예술문화상은 올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통해 광주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며 "2만 여 광주예총인들을 대표하는 상인 만큼, 수상자들이 꾸준한 지역예술계에 공헌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